

‘안방불패’ 광주FC, 이제는 올해 첫 승이다

내일 월드컵경기장서 안양 상대
2022년 이후 2년 6개월만 재회
이정호 감독 체제에서 2승 2무
헤이스·이민기 공수 활약 기대



올해 세 경기 모두 무승부를 기록하고 있는 광주FC가 승격 팀인 FC안양을 안방으로 불러들여 첫 승을 노린다. 이정호 감독 체제로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FC안양을 상대로 모두 무패행진을 달리고 있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축포를 터트리겠다는 각오다.

광주FC는 다음달 1일 오후 4시30분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FC안양과 하나은행 K리그1 2025 3라운드 홈경기를 치른다.

광주FC는 리그 개막 직후 수원FC(0-0 무)와 전북현대모터스(2-2 무)를 상대로 우열을 가리지 못했다. 아시아 무대에서도 부리람 유니타드 FC(2-2 무)와 대등한 경기를 펼치면서 올해 열린 공식 경기(산동타이산전 제외)에서 모두 무승부를 기록한 상황이다.

리그에서는 승점 2점을 적립, 10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시즌 초반 순위는 큰 의미가 없다. 특히 패배가 없다는 점이 고무적이고, 끝까지 버텨내는 뒷심도 강해진 모습이다.

광주FC는 K리그2 소속이던 2022년 9월14일 이후 약 2년 6개월 만에 FC안양

과 맞대결에 나선다. FC안양이 2013년 창단 이후 처음 승격에 성공했기에 K리그1에서는 첫 대면이다.

K리그1에서 펼치는 첫 맞대결이지만 광주FC는 FC안양에게 충분한 자신감을 가졌다. 통산 전적에서 9승 7무 5패로 앞섰고, 안방에서는 5승 4무 2패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정호 감독 부임 이후로 범위를 좁히면 더 강한 모습이다. 광주FC는 2022시즌 FC안양을 상대로 2승 2무로 무패 행진을 달리며 승점 8점을 쓸어담았다. 8득점(평균 2득점)을 터트리는 동안 3실점(평균 0.75실점)만 허용하는 등 공수 양면에서 완벽했다.

광주월드컵경기장은 이정호 감독에게 약속의 땅이기도 하다. 이정호 감독 부임 이후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네 차례 홈경기에서 광주FC는 2승 2무를 기록하며 절대 패배하지 않는 모습이다.

이스나이루 헤이스와 하승운, 안영규, 이민기, 김경민 등 2022시즌 당시 활약했던 선수들은 여전히 견재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다. 헤이스와 하승운은 득점을 터트린 기억을 지녔고 안영규와 이민기, 김경민은 두 차례 무실점 경기를 잡았다.

새로운 얼굴들의 등장도 반갑다. 양 팀이 엇갈려 있었던 두 시즌 동안 광주FC는 자시르 아사니와 안혁주, 신창무, 이강현, 김한길, 박태준, 문민서, 조성권, 변준수, 김진호 등을 영입하며 체질을 개선했



광주FC가 내일 오후 4시30분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FC안양과 하나은행 K리그1 2025 3라운드 홈경기를 치른다. 광주FC 오후성(가운데)이 지난 23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전북현대모터스와 하나은행 K리그1 2025 2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득점을 터트린 뒤 환호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다. 올 시즌을 앞두고도 박정인과 이재환, 박인혁, 강희수, 권성윤, 민상기 등을 보강했다.

오후성의 자신감도 최고조에 올라 있다. 부리람 유니타드 FC전에 선발로 기용돼 멀티골을 터트린 오후성은 전북현대모터스전에서도 교체 투입돼 득점포를 가동하며 최근 두 경기 연속 득점을 기록했다.

반면 FC안양은 개막전에서 울산 HDFC에 1-0 신승을 거뒀으나 FC서울에 1-2로 패배하며 주춤 흐름이다. 1승 1패(승점 3·득점 2·골득실 0)로 8위에 위치해 이번 맞대결 결과에 따라 양 팀이 위치를 맞바꿀 수 있다.

하지만 FC안양은 뒷심에서 돋보이는 모습이다. 울산HDFC전에서는 브루노 모따가 후반 추가시간 1분, FC서울전에

서는 최성범이 후반 추가시간 2분에 득점을 터트리며 집념을 보였다.

결국 광주FC는 더 강한 뒷심으로 승리를 거머쥐어야 한다. 올해 들어 세 경기 연속 무승부를 기록했기에 첫 승이 필요한 상황이고, 곧바로 이어지는 아시아 무대 16강에 앞서 승리를 챙긴다면 분위기와 자신감도 최고조로 끌어올릴 수 있다.

한규빈 기자 gyubin.han@jnilbo.com

피겨 서민규, 주니어 세계선수권 남자 싱글 쇼트 1위

총점 86.68 개인 최고점 기록
내달 1일 프리서 2연패 도전



피겨스케이팅 남자 싱글 기대주 서민규(사진·경신고2)가 2025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주니어 세계선수권대회 쇼트프로그램에서 개인 최고점을 세우며 1위에 올라 대회 2연패를 향한 청신호를 켰다.

서민규는 27일(한국 시간) 헝가리 데브레첸의 피닉스 아레나에서 열린 대회 남자 싱글 쇼트프로그램에서 기술점수(TES) 46.90점, 예술점수(PCS) 39.78점을 기록, 총점 86.68점을 받아 전체 41명 중 1위에 올랐다.

2위는 일본의 나카타 리오(86.04점)가, 3위는 미국의 제이컵 샌체즈(82.88점)가 각각 차지했다.

서민규의 이번 쇼트 프로그램 점수 86.68점은 개인 최고점으로, 지난해 주니어 세계선수권 우승 당시 세운 개인 최고점(80.58점)을 크게 뛰어 넘었다.

당시 서민규는 한국 남자 싱글 선수로는 처음 주니어 세계선수권에서 우승했다. 서민규는 다음달 1일 열리는 프리스케이팅에서 대회 2연패에 도전한다. 서민규가 2연패를 달성하면, 한국 남녀 선수 통틀어 최초가 된다.

서민규는 이날 쇼트프로그램 곡인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에 맞춰 연기를 시작해 첫 점프인 트리플 악셀에서 수행점수(GOE) 2.06점을 얻었다. 이어 트리플 러츠-트리플 토투프 콤비네이션 점프에서도 1.43점을 추가했다.

최고 난도인 레벨4로 플라잉 카멜 스프린을 처리한 서민규는 트리플 플립에서도 GOE 1.59점을 더했다. 이후 체인지 풋 콤비네이션 스프린(레벨 4), 스텝 시퀀스(레벨 4), 체인지 풋 스텝(레벨 4)까지 깔끔하게 연기를 마쳤다. 최후한 기자

‘5선발 경쟁’ 김도현, 3파전 독주 체제

KIA 1-3 LG... 세 경기째 역전패
김도현 2경기·5이닝 무실점 행진
‘예열 시작’ 황동하 2이닝 무실점



KBO 리그 2연패에 도전하는 호랑이 군단의 선발 로테이션을 완성하기 위한 마지막 점검이 3파전으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김도현이 두 경기 연속 무실점 투구를 펼치며 가장 앞서가는 모양새다.

KIA타이거즈는 27일 일본 오키나와 킨 구장에서 열린 LG트윈스와 2차 스프링 캠프 연습경기에서 1-3으로 역전패했다. 연습경기 결과에는 큰 의미가 없지만 KIA는 실전 모드 전환 이후 세 경기를 모두 역전패했다.

이날 역전패에도 김도현(사진)은 두 경기 연속 무실점 투구를 펼치며 5선발 경쟁에 청신호를 켰다. 5선발 후보군인 김도

현과 황동하, 김태형이 모두 무실점을 기록했지만 내용에서 가장 앞서가는 모양새다. 김도현은 가장 먼저 등판해 3이닝을 완벽히 들어막으며 2경기, 5이닝 연속 무실점을 기록했다. 39구를 던지며 안타와 볼넷을 단 한 개씩만 내줬다. 김도현은 1회초 홍창기와 박해민, 오스틴 딘을 모두 땅볼로 처리하며 삼자범퇴를 만들었다.

이어 2회초 문보경에게 땅볼을 유도한 뒤 김현수에게 2루타를 내줬지만 한승택이 주루사를 만들었고, 오지환을 파울 플레이를 처리하며 수비를 끝냈다. 3회초에도 박동원을 플라이로 처리한 뒤 문정빈에게 볼넷을 내줬지만 이영빈을 플라이, 홍창기를 땅볼로 처리하며 임무를 완수했다.

황동하는 연습경기에 처음 등판했다. 황동하는 4회초 박해민에게 볼넷을 내줬

지만 오스틴과 문보경에게 땅볼로 연속해서 선행 주자를 지은 뒤 김현수에게 안타를 내줘 2사 1·2루에 몰렸으나 오지환을 삼진으로 돌려세우며 위기를 탈출했다.

이어 5회초 박동원과 문정빈을 뜯고, 이영빈을 땅볼로 처리하며 삼자범퇴 이닝을 만들었다. 황동하는 첫 투구임에도 최고 구속 143km를 찍으며 예열을 시작했다.

김태형은 첫 연습경기에서 1이닝 3실점에 그쳤던 아쉬움을 완벽히 털어냈다. 김태형은 6회초 홍창기와 신민재에게 연속 볼넷을 내줬으나 김성진에게 삼진을 유도했고, 이주헌에게 안타를 내주며 만루에 몰렸지만 최원영에게 병살타를 유도하며 등판을 마무리했다.

한편 KIA는 7회초 유승철이 1실점, 8회초 홍원빈이 2실점하며 역전을 허용했다. 두 이닝에서만 세 개의 실책이 나오면서 모두 자책점으로 기록되지는 않았다. 타선에서는 한승택이 5회말 2사 2루에서 적시타로 고종욱을 불러들이며 유일하게 타점을 올렸다.

한규빈 기자

韓 U-20 축구 대표팀, 아시안컵 정상 도전 무산

준결승서 사우디아에 고배
승부차기서 세 차례 실축

한국 20세 이하(U-20) 축구 국가대표팀이 승부차기에서만 무려 세 차례 기회를 놓치며 아시안컵 정상 도전을 허무하게 마쳤다.

이창원 감독이 이끄는 U-20 대표팀은

지난 26일 중국 광둥성 선전 유스 풋볼 트레이닝 베이스에서 열린 사우디아라비아와 2025 AFC(아시아축구연맹) U-20 아시안컵 중국 준결승에서 연장까지 0-0으로 승부를 가리지 못한 뒤 승부차기에서 2-3으로 고배를 마셨다.

앞서 U-20 대표팀은 지난 23일 우즈베키스탄과 8강에서 연장까지 3-3으로 승부를 가리지 못한 뒤 승부차기에서 3-1로

진담승을 거두며 상위 4개 국가에 주어지는 2025 FIFA(국제축구연맹) U-20 월드컵 칠레 본선 티켓을 확보했다.

하지만 2023년에 이어 2회 연속으로 결승 문턱을 넘지 못하며 2012년 이후 13년간 무관에 그쳤고, 아시아 국가 통산 최다인 13번째 우승 도전 역시 좌절됐다.

이창원 감독은 이날 경기에서 에이스인 윤도영을 벤치에서 출발시키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다. 진태호와 하정우가 투톱을 이뤘고 박승수와 손승민, 성신, 백민규가 허리 라인을 구축했다. 김서진과 신민하,

김호진, 배현서가 포백으로 섰고 홍성민이 골문을 지켰다.

U-20 대표팀은 초반부터 공방을 주고받으며 난타전을 예고하는 듯했으나 흐름을 끌어올리는 데는 어려움을 겪었다. 전반 중반 백민규와 손승민이 두 차례 중거리 슈트를 선보였으나 무위에 그쳤고 전반 막바지에는 하정우의 헤더가 골대를 넘어갔다.

이창원 감독은 하프타임에 박승수를 대신해 윤도영을 투입하면서 분위기 반전을 노렸으나 끝내 골문은 열리지 않았다. 후

반 초반 진태호의 슈팅이 빗겨나갔고, 후반 막판에는 김태원의 헤더가 벗어났다. 연장 전반에도 이견희의 슈팅이 수비에 저지 당하면서 승부차기로 향했다.

U-20 대표팀은 승부차기에서 허무하게 무너졌다. 1번 키커 김태원의 슈팅이 막혔고, 2번 키커 이창우의 슈팅은 골대를 강타했다. 홍성민 골키퍼의 한차례 선방과 상대 실축이 겹치며 5번 키커인 김결이 기회를 얻었지만 슈팅이 막히면서 2-3으로 탈락이 확정됐다.

한규빈 기자